

경제 계급이 차별화하는 영화 인물의 움직임(movement)에 대한 연구 - 하비투스와 정동의 측면에서*

김선형**

1. 서론
2. 현대 사회 '계급'의 문제
3. 영화 서사가 드러내는 새로운 하비투스(habitus)
4. 다시 소환된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
5. 신체 움직임의 하비투스와 정동
6. 결론

국문초록

〈인 타임〉은 화폐를 대신하여 시간이 모든 경제활동의 수단이 되는 사회를 묘사한다. 불멸의 시간을 소유하여 유한계급으로 살아가는 초부유층과 하루의 노동으로 하루를 생존해 내야 하는 극빈층을 대조한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이 두 계급 인물들의 상이한 '신체 움직임 속도와 신체 반응 양식'을 보여주며 이를 반복적으로 질문한다. 〈리플리〉와 〈기생충〉의 인물들도 신체 행위를 통해 경제 격차를 드러낸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경제체제를 신체 움직임과 연결하고 이러한 몸의 기호가 현대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6432)

**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학과 영상예술학 박사, 국제논스크립트콘텐츠협회 (INSCA) 국제위원회 위원장

사회의 계급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서 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영화 인물들의 '뛰는 행위와 뛰지 않는 행위', '과장됨과 무심함의 반응 양식'은 경제 수준을 반영하는 표식이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신체 반응이 의식적인 판단이나 계산된 행위의 결과라기보다, 오랜 습관을 통해 몸에 새겨진 상태로, 무의식적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행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하비투스'로 개념화한다. 특히, 뛰지 않고 무심한 부자 계층의 행위 양식을 르네상스 시대 궁정인의 덕목 '스프레차투라'에 연결함으로써 하비투스 연구를 확장한다. 경제자본이 전환된 문화자본, 이를 드러내는 하비투스가 '무의식적 층위에서 발현되는 집단적인 도식'이라는 점은 '정동'과도 공명한다. 차별적인 신체 움직임은 빈자와 부자 계급의 '감정구조'를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체화되고 전이되는 하비투스가 집단 간 '구별짓기'를 통해 현대의 '강화된 계급사회'를 드러냄을 밝히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경제 계급, 신체 움직임의 하비투스, 스프레차투라, 정동을 아우르는 본 연구는 상이한 집단의 미시적 신체 행위가 현대 사회의 계급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총체적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또, 이 연구는 하비투스 이론의 외연을 확장하는 동시에, 몸과 사회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도 이론적·실천적 접점을 형성한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경제 계급, 신체 움직임, 하비투스, 스프레차투라, 정동)

1. 서론

SF 장르 〈인 타임(In Time)〉(2011)은 자본(시간) 소유량에 의해 수평적 구도¹⁾로 구획화된 사회를 묘사한다. 이 영화는 특이하게도 빈자 계층

과 부자 계층의 '경제자본 소유량'의 대조를 넘어 이들의 '상이한 신체 움직임'을 대조시킨다. 서사를 통해 뛰는 빈자들과 뛰지 않는 부자들의 몸 움직임을 보여주며 시간 소유량과 뛰는 행위의 함수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대사를 통해 이의 의미를 반복적으로 질문한다. 또, 빈자들의 절박함과 두려움에서 오는 '과장됨'과 '무심함·여유·우아함·태연함' 등의 부자들의 반응 양식을 대조한다. <기생충>(2019) 또한 빈자와 부자 계층으로 인물들을 구분하고 이들의 신체 언어에 의해 계급을 논한다. 흥미롭게도 <리플리(The Talented Mr. Ripley)>(1999)는 동일한 인물이 빈자와 부자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신체 움직임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이 영화들이 현대 사회의 계급 문제를 인물들의 신체 움직임을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의 논의에 하비투스²⁾를 그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특히 이전에 논의된 바 없는 '신체 움직임의 속도'와 '신체의 반응 양식'이라는 새로운 하비투스를 제안하고 이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의 하비투스 연구가 주로 언어와 취향의 영역에서 다루어졌다면 본 연구는 이를 '몸'에 적용한다. '사회화된 몸',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험과 얽힌 몸, 사회와 맥락화 된 몸'의 하비투스를 통해 현 사회를 통찰하고 읽어내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하비투스는 '신체 움직임의 빠르고 느림'과 '신체 반응 양식의 과장됨과 무심함'으로 빈자와 부자, 이 두 계급을 대조시킨다. 특히, 본 논문은 부자 계층의 행위 양식을 르네상스 시대 궁정인(宮廷人)의 덕목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와 연결하는데 이는 하비투스 연구를 확장하는 의의를 지닌다. 본 논문이 분석하는 세 영화는

1) 영화는 이미지를 통해 계급을 적극적으로 재현한다. <시민 케인(Citizen Kane)>(1941)과 <하녀>(1960)는 그 대표적 예다. 또, <설국열차>(2013)는 수평적 구도로, <기생충>(2019)은 수직적 구도로 계급을 드러낸 바 있다.

2) 본 논문에서는 라틴어의 원래 발음을 존중하여 불어의 아비투스를 대신해 하비투스로 표기한다.

서로 다른 시대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재현하지만,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자본과 계급의 문제를 ‘문화적 측면’에서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고, 자본과 계급의 문제가 특정 시대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은 ‘전지구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그 선정 이유의 타당성을 확보한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핵심 이론인 하비투스¹⁾는 오랜 시간에 걸쳐 습득되고 체화되어 행위자의 몸에 뿌리내린 도식으로 몸에 새겨 구조화된 행위자들의 표현 방식이다. 그리고 이는 지속·생성·이전 가능한(transposable) 속성을 갖는다. 사회와 관계 맺는 방식, 특정 유형의 환경을 구성하는 조건에 의해 생산되는 이것은 따라서 경제 환경을 반영한다. 또, 행동 성향의 집합이라는 측면에서 집단적이다. 하비투스가 ‘몸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무의식적·집단적 층위에서의 실천’이라는 점은 ‘의식에 선행하거나 의식 밖에 존재하고, 개인 차원이 복수화되어 집단적으로 공유되며, 문화의 영역을 통화한 이후에 오는 몸’으로 설명되는 정동(affect)과도 공명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세 편 영화 인물들의 신체 행위가 ‘사회 구조·사회 관계·무의식·집단’과 관련 맺고 있으며 이는 곧 하비투스·정동과 접점을 형성한다는 점을 제안한다. 몸과 연관된 이 하비투스는 현대 사회 구성원의 ‘감정구조’이며, 이는 문화적 기호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기호는 금융자본주의 체제하의 현대 사회, 더 심화된 계급사회를 함의한다.

본 연구는 경제체제의 변화로 인한 사회 변화,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의 핵심구동장치인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의 양극화를 심각한 태도로 바라보고, 이러한 사회현상의 증상을 포착하여 재현하는 영화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 영화들이 ‘문화적 기호를 통해 더욱 심화되는 현대 사회의 계급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독해해 내었다. 이러한 논점으로 진행되는 본 연구는 영화 인물의 미시적 신체 행위를 통해

수사학의 통치 기술로 은폐되는 현대 사회의 진면목을 거시적으로 통찰하게 한다.

2. 현대 사회 '계급'의 문제

근대의 유물로 여겨지며 많은 정치가와 학자들이 종말 선언에 참여하였으며 울리히 벡(Ulrich Beck)이 좀비 카테고리(zombie category)³⁾라고까지 한 '계급', 이것의 종말 논의를 추동하는 핵심 전제는 현재가 계층 이동이 가능한 사회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표면적 착시현상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일자리 증가에 의한 것이며 실질적인 이동의 기회는 20세기 내내 낮았다⁴⁾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중산층의 형성, 대중문화의 범람, 민주주의의 보급”⁵⁾에 의해 '계급이 기체화'⁶⁾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계급의 인식은 매우 어렵다.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계급의 다양화와 경제 격차로 인한 계급의 강화 현상에도 불구하고 이의 인지는 더 어려워진 것이다. 또, 은밀하게 작동하는 문화적인 기호의 작동 방식 또한 이러한 현상을 심화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확립은 매우 시급하다.

'계급'은 “다양한 개인의 특성과 삶의 물질적 조건을 대략적으로 결합시켰을 때 나타나는 집단”⁷⁾, “동일하거나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인들의 집

3) Sam Friedman & Daniel Laurison, *The Class Ceiling: Why it pays to be privileged*, Bristol University Press, 2020, pp.5-6.

4) 위의 책, p.6.

5) 허만섭,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본 영화 <기생충>: 현대적 아비투스 계급의 발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19호,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0, 141쪽.

6) 위의 글, 141쪽.

합, , 근대 이후 사회의 층화 집단”8), “사회성원 사이에 현실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범주”9), “봉건적 신분사회가 해체된 이후에 출현한 새로운 사회 구조와 불평등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10) 등으로 설명된다. 이를 단순하게는 ‘상층 계급(높은 수입, 사회관계, 재능을 가진 사람들)’, ‘중간계급(경제와 사회 구조의 넓은 중간층을 차지)’, ‘하층계급(빈곤선 이상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교육적·문화적 자원이 부족)’, ‘최하층계급(기초적인 기술과 교육이 결여되어 극도로 빈곤한 삶을 영위하는 주변화된 사람들)’으로 분류11)할 수 있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은 현대의 계급을 일곱 가지 유형으로 제시12)하였다. 포스트-포디즘(post-Fordism)적 생산 환경에서 새로이 양산된 프레카리아트, 금융자본주의에 의해 탄생한 슈퍼 엘리트 계급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슈퍼 엘리트 계급의 대표적 예는 대기업 CEO로 50년 전 일반 근로자의 20배였던 이들의 보수가 지금은 300배에 달한다13). 즉, 계급은 교육, 직업, 소득 등 위계적 구조를 띠는 지표들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상이한 생활 양식, 삶의 가치관, 태도, 행위14)를 낳는 것이다.

금융자본주의는 시장의 자유를 내세웠던 초기자본주의, 그리고 이의 결

7) 에릭 올린 라이트, 『계급 이해하기』, 문혜림·곽태진 역, 산지니, 2017, 24-25쪽.

8)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깡,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 사유의 지평』, 이상길 역, 그린비, 2015, 489쪽.

9) 송한나, 「한국 사회의 계급위치와 계층의식 격차에 미치는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르디외의 자본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8쪽.

10) 위의 글, 11쪽.

11) 에릭 올린 라이트, 앞의 책, 24-25쪽.

12) Guy Standing,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2011, pp.12-13.

13) 로버트 라이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안기순 역, 김영사, 2016, 135쪽.

14) 송한나, 앞의 글, 12쪽.

함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던 후기자본주의, 그리고 또다시 자유를 소환해 온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가 핵심구동장치로 선택한 체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시스템 수준에서 변모”¹⁵⁾한 금융화를 의미하며 실물이 아닌 화폐, 즉 금융의 활동을 중심에 둔다. 20세기 전반의 산업화 시대, 내구재를 제조·생산하며 복지 및 노동계약 및 시장 규제에 집중하던 포디즘적 생산방식은 자본 회전 시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이윤 축적의 한계¹⁶⁾를 맞았다. 약화된 수익성을 극복하고 경직된 구조를 유연화하는 방법이 생산 거점을 해외로 이전 확장하는 세계화 전략이었는데 이는 은행-기업-개인이 맺는 관계의 체계적 변형¹⁷⁾으로 경제 전반을 재구축하며 금융을 능동적 행위자로 두는 사회 변동¹⁸⁾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금융화-세계화는 연결된 개념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생산의 세계화뿐 아니라 기계와 통신을 통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유동하는 무한량의 화폐, 즉 자본의 세계화다. 생산의 세계화는 현대 사회의 빈자 계층인 프레카리아트 계급을 양산했으며 금융 활동의 세계화는 노동의 개입 없이도 금융거래를 통해 축적되는 이윤의 급격한 성장을 통해 금융의 착취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다수의 희생 위에서 소수의 손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시장 조작¹⁹⁾을 의미한다. 또, 동시에 금융자본을 소유한 자본가 계급의 새로운 이윤 창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작동 구조와 작동 방식에 의해 금융자본주

15) 코스타스 라파비차스, 『생산 없는 이윤』, 송중운 역,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20, 5쪽.

16) 권창규, 「신자유주의 사회의 위험 상품화와 투자자 주체들」, 『한국문학연구학회 제96차 정기 학술대회』, 2018, 108쪽.

17) 박찬중, 「금융의 사회학과 구조변동: ‘금융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논문, 2012, 20쪽.

18) 위의 글, 2-3쪽.

19)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역, 한울, 2007, 196쪽.

의는 상층·중간·하층의 단순한 계급분류를 넘어 '1대 99'²⁰⁾가 말해 주듯 사회의 1%에 속하는 초부유층, 그리고 하층에 속하는 다수의 프레카리아 트라는 새로운 계급들을 탄생시켰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균형을 초래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도입·수용되고 의심받지 않은 채 운영된 이유의 근저에는 '자유'라는 개념적 장치²¹⁾가 있었다. 신자유주의 도입 배경의 근원이 상위 계급의 권력 회복을 위해 추동된 정치적 프로젝트²²⁾였다는 점, 이의 핵심구동장치인 금융자본주의는 불평등과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이며 태생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를 상기해 볼 때, 모든 것의 금융화를 목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사회는 부는 상층에, 위험은 하층에 축적²³⁾되게 하면서 강화된 계급사회를 만든 것이다. 또, '자기 경영, 무한 성과' 등의 수사(修辭)술 또한 신자유주의를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되게 하는 통치 기술²⁴⁾로 작동한다. 본 논문은 이에 현대 사회의 불평등, 특히 경제적 불평등을 계급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하고 경제 계급과 더불어 문화계급의 문제를 상정한다. 그리고 문화계급을 드러내는 표식으로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의 '하비투스'를 분석틀로 삼는다.

먼저 이 논의에는 경제와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마르크스의 경제적 개념의 자본을 부르디외는 문화자본과 사회자본으로 확장하였다. 경제자본이 물질적 형태를 띠는 가시적인 것이면서 즉각적으로

20) 2011년 가을 뉴욕 월가에서 시작한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저항 시위(Occupy Wall Street)로 그 중심 주장은 '상위 1%의 자본가·금융 엘리트의 부와 권력 독점, 그리고 경제적·정치적 권력의 불균형'에 관한 것이었다.

21) 데이비드 하비, 앞의 책, 21쪽.

22) 위의 책, 31-33쪽.

23) 율리히 벡, 『위험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75쪽.

24)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5를 참조하라.

화폐로 환산 또는 변환되는 재산권의 형태로 제도화²⁵⁾된 것이라면, 문화 자본은 체화된 것으로서의 문화적 감식 능력, 성향, 취향 등의 속성을 말한다. 부자 계층이 더 많은 문화자본을 소유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바로 자본의 전환에 의한 것이다. 부르디외는 각각의 자본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전환됨으로써 총자본의 양이 증식된다고 보았다. 본 논문은 이 지점에서 소유한 경제자본의 문화자본으로의 전환은 “매우 “특정한 조건” 위에서 매우 “은폐된” 메커니즘을 통해 수행”²⁶⁾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자 계급의 증가된 경제자본은 경제자본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빈자 계급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의 취미, 비싼 학위, 실생활에 즉각적으로 소용되지 않는 자격증, 언어와 행위로 드러나는 예절’ 등의 접근 기회와 접근 빈도를 높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반복적 노출 및 훈련을 통해 습득한 문화적 기교, 감식 능력 등은 ‘경제적 조건이 전제하는 시간과 비용’에 치환되는 문화적 자본이 된다. 이는 외부에 물질적·객관적 형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행위자의 체화된 성향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인지가 어렵다. 이 때문에 오히려 행위자는 경제자본과 더불어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문화자본력을 드러내면서 위계를 형성하고 극단적인 경우, 이는 상징 폭력이 된다.

본 논문이 신자유주의와 그 핵심구동장치인 금융자본주의를 현대계급 논의의 출발점에 위치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새로이 도입한 금융자본주의라는 체제가 초래한 극심한 빈부격차와 부의 양극화 현상은 경제격차의 심화는 물론,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맹렬한 상호 전환에 의해 문화격차 또한 심화시켰다.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경제 격차와 더불어 몸에 내재된 채 은밀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문화 격차는 총자본량

25) 김동일, 『피에르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6, 48-49쪽.

26) 위의 책, 51쪽.

의 격차를 심화시켜 집단을 ‘구별짓기’ 한다. 이러한 연유로 부르디외는 ‘공동체의 정체성, 집단들 사이 투쟁의 목적이자 수단인 문화’가 계급과 만난다²⁷⁾고 보면서 이를 계급화 역할을 수행하는 하비투스로 논하였다.

하비투스는 사회 속에서 나의 계급, 행위, 그리고 구조를 매개²⁸⁾한다. 지속되며 전이되는 성향으로 의식적 지향 없이도 객관적으로 적응될 수 있는 재현과 실천을 조직하고 발생시키는 원칙²⁹⁾이다. 하비투스는 특정 환경에서 습관적으로 습득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구축되고 세대로 전수된다. 외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행위자의 몸에 스며들어 축적되어 체화된 것으로 ‘몸’과 연관된다. 이러한 개인 행위자의 하비투스는 특정한 환경·사회에서 습득되고, 특정 구조·상황과의 관계를 통해 작동³⁰⁾하므로 이는 계급과 관련지어진다. 유사한 하비투스는 동일한 계급의 표식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제자본의 객관적 계급과 주관적 하비투스가 드러내는 문화적 계급’은 공모³¹⁾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을 강화하게 된다.

주로 행위자의 자세·몸짓·발음·어법·신체적 특징·취향·소비 방식 등으로 드러나는 하비투스는 미세한 수준에서 분화되고 그것이 객관화됨으로써 우월한 계급을 변별짓게 하는 속성들의 총체로 권력관계를 형성³²⁾한다. 오랜 시간의 연속, 느린 친밀화를 통해 습득된 ‘감지하기 어려운 매우 미세한 지각(little perceptions), 예술적 기술(art), 어떤 경지에 이른 예술적 약호의 해독 능력’³³⁾인 하비투스는 세련된 기질, 우아함, 귀족적

27) 위의 책, 63-64쪽.

28) 위의 책, 1쪽.

29)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1990, p.53.

30)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강, 앞의 책, 467쪽.

31) 김동일, 앞의 책, 8쪽.

32) 위의 책, 479-480쪽.

33) 피에르 부르디외·니콜라스 간헐 외,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박명진 외 역, 한나래출판사, 1996, 89-91쪽.

특질로 “통상적인 무리들과 구분시켜 주는 차이의 특징”³⁴⁾이라는 변별점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부르디외의 경제·문화·사회 자본의 구분을 넘어 도리스 메르틴(Doris Martin)은 하비투스를 심리·문화·지식·경제·신체·언어·사회의 일곱 영역으로 분류³⁵⁾하였다. 경제자본은 ‘위험이 발생해도 해결의 근원이 되는 안전망으로서의 자본, 이에 대한 확신’이라는 심리자본³⁶⁾을 강화한다. 또, ‘옷, 신체의 관리, 신체의 운용’ 등 신체를 기호화하는 신체자본 강화의 근간이 된다. 이런 문화적인 차이, 하비투스로 표현되는 이 격차는 사회에 대한 특정한 시각을 부과하는 힘이며 “세계 형성의 권력world-making power”³⁷⁾이 된다. ‘언어의 사회적 용법(운율·발음·어휘·구문상의 변이들이 갖는 차이들)의 사회적 가치의 차이들’인 언어 하비투스는 체계를 재생산하면서 위계화되고 이 차이의 체계들은 이를 전유하는 사람들의 식별 표지³⁸⁾가 된다. 어떤 단어도 결백하지 않으며 일상적 언어는 순수한 의사소통의 기능만 수행하기보다 권위의 기호³⁹⁾로 작동하는 것이다.

3. 영화 서사가 드러내는 새로운 하비투스(habitus)

〈인 타임〉은 시간이 화폐를 대체하고 시간 소유량에 따라 계급이 결정

34) 위의 책, 98쪽.

35) 도리스 메르틴, 『아비투스HABITUS: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배명자 역, 다산초당, 2020.

36) 위의 책, 188쪽.

37) 이상길, 『상징권력과 문화: 부르디외의 이론과 비평』, 컬처북, 2020, 14쪽.

38) 피에르 부르디외,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 역, 나남, 2020, 56쪽.

39) 위의 책, 75쪽.

되는 사회⁴⁰⁾를 묘사한다. 극빈층 출신의 주인공 월 살라스(저스틴 팀버레이크 분)는 100여 년의 시간을 소유한 술집 손님 헨리 해밀턴(맷 보머 분)이 ‘미닛맨(minute men)’이라고 불리는 시간 도둑들의 표적이 되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해 준다. 105세 헨리는 28세의 월에게 ‘타임 존(time zone)⁴¹⁾의 존재 의미와 물가 폭등의 이유’ 등 경제시스템의 본질에 대해 질문한다. 공장 노동자로 체제 순응적인 삶을 살아온 월의 생소해하는 반응은 현대 사회의 개인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계급 문제나 구조적인 불평등과 관련지어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점⁴²⁾을 보여준다. 헨리는 ‘모두가 영원히 살면 땅이 모자라고, 물가를 계속 올려야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소수의 영생을 위해 대다수가 죽어야 한다⁴³⁾.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일찍 죽지 않아도 된다. 모두에게 돌아가도 남은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시스템의 무서운 진실을 폭로한다. 그리고 월이 잠든 동안 자신의 시간을 그에게 주고 죽음을 맞이한다. 헨리와 월이 대표하는 이 두 계급은 가이 스탠딩의 계급 분류에서 ‘슈퍼 엘리트’와 ‘프레카리아트’에 유비된다. 화폐를 대신해 시간으로 작동되는 이 사회의 계급 문제는 ‘질적 시간(quality time)의 소유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빈자와 부자 계층의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의 조

40) 이 사회에서 인류는 유전자 조작에 의해, 25세가 되면 생물학적 노화가 멈추고, 단 일 년의 시간을 부여받는다. 모든 경제 행위는 화폐의 등가물인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극빈자 계층에 소속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매일 노동을 통해 시간을 벌어야 하고 소유한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사망한다. 반면, 수백 년의 시간을 소유한 부유층들은 노동하지 않고서도 인생을 향유하며 실질적으로는 불멸의 삶을 살아간다.

41) 경제자본 소유량에 따라 Time zone 1, 2, 의 수평적 구조로 구획화되어 있다. ‘뉴 그리니치(New Greenwich)’는 최상층 부자들의 거주 구역이고 ‘데이튼(Dayton)’은 월과 같은 극빈층이 모여 사는 구역이다.

42)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34쪽.

43) 시스템 총량의 유지를 위해 초과량을 주기적으로 제거하는 체제의 운영 방식은 〈설국 열차〉(2013)에서도 묘사된 바 있다.

권⁴⁴⁾에 의해 더 심화된다.

월의 엄마 레이첼 살라스(올리비아 와일드 분)가 아들의 점심을 위해 그녀의 30분을 베푸는 행위는 이미 퇴근 후 '와이즈 시간 금융(WEIS TIMELENDERS)'에 값을 이틀 치의 대출금과 돌아올 버스 요금 1시간 30분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후이다. 예기치 않게 그녀의 버스 탑승이 거부되는 이유는 예고 없이 2시간으로 오른 버스 요금 때문이다. 탑승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므로 절박한 심정으로 탑승을 애원하는 그녀에게 버스 기사는 "그러면 뭘 수밖에 없네요."⁴⁵⁾라며 그녀의 청을 단호히 거절한다. 살기 위해 그녀가, 그리고 엄마를 살리기 위해 월도 처절하게 뛰지만⁴⁶⁾ 결국 엄마는 간발의 차이로 월의 눈앞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 장면은 "경제적·정치적 힘이 상위층에 고도로 집중"⁴⁷⁾된 시장 조작의 사회를 보여준다. "실존을 생산·통제하는 기술을 형성·배치"⁴⁸⁾하는 시스템의 착취를 보여준다.

체제의 모순에 분노한 월은 뉴 그리니치로 향한다⁴⁹⁾. 그곳에 도달한 월은 평소처럼 뛰는데, 그를 제외한 그 누구도 뛰지 않는 매우 생소한 광경을

44) Guy Standing, *The Politics of Time: Gaining Control in the Age of Uncertainty*, Penguin Books, 2024, pp.165-167.

45) 이 영화의 중심 주제인 '생존과 뛰는 행위의 밀접한 관계'를 드러낸다.

46) 월이 엄마에게 자신의 시간을 나눠주면 그녀를 살릴 수 있어, 그 또한 온 힘을 다해 달린 것이다.

47) 로버트 라이시, 앞의 책, 208쪽.

48) 마우리치오 라자라도, 『부채인간: 채무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 허경·양진성 역, (주)메디치미디어, 2012, 22쪽.

49) 수평적 구조로 계층화되어 있는 이 사회의 각 구역을 통과하는 데에는 큰 비용이 든다 (실제로 월이 뉴그리니치에 도달할 때까지 지불한 시간은 5년 정도이다). 따라서 빈자 거주 구역에서 부자 거주 구역으로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계급 논의의 핵심인 '계급 이동 가능성'에 대한 장면으로 이동의 원천은 결국 자본량임을 드러내며, 계급 이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목격한다. 고급 호텔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하는 월에게 웨이트리스는 “여기 분 아니시죠?”라며 “행동이 너무 빠르세요.”라고 귀뜸해 준다. “시간이 많으니 뭘 필요 없다.”라는 경찰들의 대화 장면 또한 시간(자본)과 신체 움직임의 상관관계를 드러낸다. 이곳의 대부호 필립 와이즈(빈센트 카트하이저 분)는 금융업을 통해 자신의 집무실 금고에 백만 년, 생체 시계 9820년, 이외의 금고 시간까지 합쳐 천문학적 시간을 소유한 인물로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그의 딸 실비아(아만다 사이프리트 분)는 외지에서 온 월에게 끌리고 이들은 시스템에 같이 저항하게 된다. 그녀 역시 월에게 “명문가 출신 맞아요?”라고 질문하는데 “왜 의심하죠?”라는 그에게 “뛰는 걸 보았어요. 빈민가 사람들처럼 뛰던데요.”라고 답변한다. 이 영화는 시종 빈자와 부자로 계층을 나누고 ‘뛰는 자와 뛰지 않는 자’를 대조한다.

또, 이 영화는 ‘과장됨과 무심함’의 이분법을 통해 빈자와 부자의 반응 양식을 구별짓는다. 위기 앞에서 빈자 계층의 표정과 몸짓은 ‘과장되고 부신하며 절박’한데 이는 결국 자본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그들의 무력감과 공포에 기인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와이즈는 월과 딸이 ‘와이즈 시간 금융’을 털어 그들이 ‘불법 시간’이라 부르는 시간을 빈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심지어 자신의 금고에서 백만 년을 훔쳐가는 과정에서 월이 그의 얼굴에 권총을 겨누는 상황에서조차 ‘우아하고 침착하며 무심한 표정과 몸짓’으로 일관한다. <인 타임>의 구획화된 지역, 이곳 거주자들의 ‘빠름과 느림’, ‘과장됨과 무심함’으로 대조되는 신체 움직임은 계산하거나 의도된 행위라기보다 즉각적인 반응 양식으로 집단의 위계를 드러내는 하비투스로 작동한다.

<리플리>는 동일 인물의 몸짓을 통해 빈자 계급과 부자 계급의 하비투스를 대조시킨다. 주인공 톰 리플리(맷 데이먼 분)가 빈자(피아노 조율사·호텔 보이)일 때와 부자(그가 살해한 디키 그린리프) 행세를 할 때, 이 인물

은 매우 다른 신체 하비투스를 보여준다. 가난한 청년 톰은 어느 상류층 파티에서 프린스턴대학 재킷을 빌려 입고 피아노 연주 대역을 하다 우연히 선박 재벌 그린리프의 눈에 띄게 된다. 그는 톰에게 천 달러를 제시하며 이탈리아에 있는 아들 디키(쥬드로 분)를 뉴욕으로 데리고 오기를 요청한다. 디키와 그의 애인 마지(기네스 팰트로우 분)가 거주하는 집과 소유한 물건들은 물론, 그들이 보여주는 매너와 세련된 문화는 결국 부르디외가 말한 경제자본과 그것이 전환된 문화자본, 이들 자본의 총량 논의를 확인해 준다. 그곳 생활에 젖은 톰은 그린리프와의 약속을 저버린 채 상류사회의 삶을 은밀히 욕망한다. 하지만, 상류층과는 이질적인 톰의 행동 방식에 디키는 서서히 불편함, 싫증,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문화계급 격차가 관계를 균열시키는 원인으로 작동⁵⁰⁾함을 보여준다. 톰은 자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하며 모욕적인 말을 내뱉는 디키와 다투다 그를 살해하게 된다. 그러나 죄책감조차 압도하는 그의 욕망은 그에게 죽은 디키 행세를 하도록 부추긴다. 이제 이 영화는 ‘가난한 청년 톰’과 ‘죽은 디키를 가장하는 톰’을 통해 빈자와 부자의 대조되는 신체 움직임을 전시한다.

영화 초반, 톰은 피아노 연주 후 재킷을 벗고 급하게 길을 뛰어간다⁵¹⁾. 호텔 보이로 일하는 그가 투숙객 옷의 먼지를 털어내며 그들의 기분을 맞출 때, 피아노를 치다 관리인에게 들켜 일어날 때, 그의 몸 움직임은 경박하고 빠르다. 이때 그의 얼굴은 약자의 열패감으로 가득하다. 디키와 마지, 디키의 친구 프레디와 있을 때 톰은 늘 주눅 들어 있다. 톰은 그들의 문화를 접한 적 없고, 따라서 알지 못하며, 이러한 연유로 그들과 온전히 융화되지 못한다. 흥미롭게도 이 영화는 죽은 디키 행세를 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톰을 관객에게 보여 준다. 호텔로 걸어 들어가는 톰의 얼굴은 자신

50)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마음산책, 2014, 33쪽.

51) <인 타임>의 뛰는 행위에 대한 설명을 참조하라.

감으로 가득하고 걸음걸이는 매우 여유롭다. 또 다른 장면, 디키의 목욕가운을 입은 채 칵테일을 만들고 있는 톰을 갑작스럽게 방문한 마지는 그에게 “완전히 변했다”고 말한다. 이 대사는 마지가 보고 있는 톰은 이전의 가난하고 주눅 든 톰이 아니라 이곳 이탈리아에서의 생활과 그 경험 속에서 여유롭고 세련된 신체 운용 방식, 즉 부자계급의 하비투스를 습득한 톰임을 말해 준다.

이 영화는 더 나아가 동일한 장소에서 짧은 시간 간격을 두고 톰과 디키의 역할을 횡단하는 인물의 행위를 보여준다. 오페라 공연장에서 섬유 재벌 가문의 딸 메리디스, 그리고 그녀 부모님과 대화할 때 이전의 가난한 톰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표정과 몸의 움직임은 여유롭고 자신감에 차 있으며 상류계층의 우아함이 있다. 그러나 그곳에 온 마지를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톰의 몸은 상반된 신체 언어를 보여준다. 마지가 안경이 없다고 지적하자 재빨리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있던 안경을 꺼내 쓰고 당황함을 감추기 위해 좀 전과는 다르게 과장된 몸짓과 이마 가득 주름을 만들며 말한다. 또, 디넬리 카페에서 마지를 만나는 그는 ‘가난한 청년 톰’이다. 계단을 급하게 ‘뛰어’ 내려오고 그녀와 대화할 때는 ‘입을 벌리고, 얼굴을 찡그리면서, 과하게 웃고, 머리를 빈번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분주하고 과도한 열정의 내적 압박⁵²⁾이다. 자신감과 여유로움에 가득 찬 가짜 디키의 표정과 대조되는 하비투스인 것이다.

〈기생충〉은 등장인물을 초부유층과 빈자 계층의 두 계급으로 나누고 이들 삶의 속성을 세밀하게 드러낸다. 글로벌 IT 기업의 CEO인 박사장(이선균 분)의 가족과 그 집에 기사, 가정부, 과외 선생님과 고용된 기택(송강호 분)의 가족, 박사장의 이전 가정부 문광(이정은 분)과 그녀의 남편 근세,

52) 도리스 메르틴, 앞의 책, 229쪽.

이 세 가족의 경제적 위치와 이들의 상이한 문화적 기호를 대조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동조 현상이 만든 슈퍼 엘리트 박사장, 그의 지상 저택의 거실에는 건축가 남궁현자의 고가의 작품이 걸려 있다. 빈자 계층에게 이 작품은 구매할 수 없고 무용(無用)하며 해독 불가한 대상일 뿐이다. 자영업을 하다 무직이 된 기택 가족이 거주하는 곳은 반지하 주택이며 이들의 취향은 매우 저렴⁵³⁾하다. 문광의 남편 근세가 숨어 지내는 곳은 박사장 저택의 지하실이다. 이 영화는 이렇게 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물의 거주 공간을 지상, 반지하, 지하의 수직적 구도로 계급화하였다.

이 인물들 행위의 특색을 살펴보면, 먼저 초부유층인 박사장과 그의 아내 연교(조여정 분)의 걸음걸이, 움직임, 말투는 상류계층의 품격, 우아미, 여유를 말해 준다. 그에 비해 반지하 주택의 지저분한 화장실 변기 옆에 바짝 붙어 쪼그려 앉은 기정(박소담 분)과 변기에 왼손을 댄 채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든 기우(최우식 분)가 와이파이 신호를 받으려 애쓰는 모습, 밥상 앞에서 민소매 티셔츠 안으로 한 쪽 다리를 넣고 음식을 입에 가득 넣은 채 우적우적 씹는 기택의 아내 충숙(장혜진 분)의 모습은 우아한 박사장 가족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 <기생충>은 <리플리>의 톰과 마찬가지로 문광을 통해 빈자/부자 계급의 상이한 하비투스를 극단적으로 대조시킨다. 박사장 저택의 가정부로 고용되어 있을 때 그녀의 걸음걸이, 표정, 말투 등은 그녀를 부잣집 사모님으로 착각하게 한다. 이는 초부유층의 고용주와 동일한 환경에 살면서 그들의 “통례화된 문화”⁵⁴⁾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이것의 “직접적인 경험”⁵⁵⁾을 통해 그들의 하비투스를 습득한 덕분이다. 그러나 기택의 간계에

53) 김선형, 「금융자본주의시대 영화의 포스트 - 컨티뉴어티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46쪽을 참조하라.

54) 피에르 부르디외·니콜라스 간헐 외, 앞의 책, 93쪽.

넘어간 연교가 문광을 쫓아낸 후, 생계를 위협받는 그녀가 산발한 채 이 저택에 찾아와 소리칠 때 그녀 몸의 움직임과 표정은 초부유층 가사도우미로서의 문광과 철저히 상반된 신체 하비투스를 보여준다.

이 영화들 이외에도 다수의 서사물이 문화적 기호의 ‘구별짓기’를 통해 현대 사회의 경제 격차를 재현하고 있다. 이창동 감독의 <버닝>(2018)은 노동하지 않아도 넘쳐나는 경제 자본력을 통해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유한 계급(有閑階級)의 초부유층과 노동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프리카리아트, 이 두 계급의 문화 격차를 음악, 음식, 문학 등의 교양 수준에 의해 신랄히 비교한다. 2015년의 한국 드라마 <가면>은 <리플리>와 마찬가지로 동일 인물이 부자 계급과 빈자 계급의 하비투스를 재현해 낸다. 백화점 판매원인 변지숙(수애 분)과 국회의원이자 강력한 대선 후보를 아버지로 둔 서은하(수애 분)의 행동 방식, 표정 등을 대조⁵⁶⁾한다. 넷플릭스 리얼리티 시리즈 <마인드 유어 매너: 인생을 바꾸는 에티켓(Mind your manners)>(2022)은 국제 에티켓 강사인 사라 제인 호(Sara Jane Ho)를 통해 부유층의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문화 예절을 소개한다. 식사 예절, 표정, 말하는 방법 등 품격을 드러내기 위한 몸의 운영 방식을 알려준다. 셀 베이커(Sean Baker) 감독의 <아노라(Anora)>(2024)⁵⁷⁾에서 아노라는 영화 전반에 걸쳐 고성을

55) 위의 책, 95쪽.

56) 지숙의 아버지는 무능한 가장으로 빚에 시달리며 아내, 아들과 분식점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환경의 하비투스를 습득한 지숙은 백화점 판매원에 걸맞은 빠른 몸놀림과 즉각적이고 과장된 표정을 보여준다. 반면, 든든한 부모와 재력을 등에 업은 서은하는 애인(불륜 상대) 아내의 남동생과 정략결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몸짓과 표정에 어떠한 동요도 보이지 않는다. 느린 움직임, 여유로움, 어떤 위기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당당한 표정 등은 그녀의 신체 자본으로 작동하면서 변지숙과 서은하의 환경을 대조시킨다.

57) 아노라는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온 러시아 부호의 아들 이반의 눈에 들게 되어 ‘성노동 계약’을 맺고 그녀의 직업의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다. 이 상황이 무척 흡족했던 두 사람은 즉흥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만, 부모의 반대 앞에 철부지 이반은

지르며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 자신을 항변하는 반면, 이반 부모는 그녀의 격앙된 태도에 한 치도 흔들리지 않고 시종 절제된 언행으로 일관한다. 이 영화 또한 사회 하층의 성 노동자와 초부유층인 이반 부모의 행동 방식을 극단적으로 대조시킨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작품들은 인물들을 통해 “특정한 구조, 특정한 상황과의 관계를 통해 작동”⁵⁸⁾하는 미시적 신체 행위로서의 하비투스를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이것의 암묵적 권력을 드러낸다.

4. 다시 소환된 ‘스프레차투라(sprezzatura)’

다소 생소한 ‘스프레차투라’는 “어려운 일을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예사로 하는 척, 그래서 그 일이 아주 쉽고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한다”⁵⁹⁾는 뜻으로 르네상스 시대 궁정인의 덕목이자 이탈리아인들이 높이 샀던 미덕이다. ‘궁정’은 ‘Renaissance Court’ 또는 ‘宮廷’으로 표기되며 르네상스 시대 유럽 왕실(혹은 귀족)의 정치,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다. ‘궁정인’은 대궁정에 소속되어 군주에게 진리를 조언해 주는 교육가이자 행정가의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유창한 말솜씨와 글솜씨,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 신중한 속고 끝에 내리는 결단력, 뛰어난 예술적 재능⁶⁰⁾ 등의 특별한 자질, 행동 윤리가 요구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행동 양식을 일컫는 말이 ‘스프레차투

아노라를 버리고 무책임하게 사라진다.

58) 피에르 부르디외·로의 바깥, 앞의 책, 467쪽.

59) 피터 데피로·메리 데스몬스 핀코위시, 『스프레차투라: 천재의 방식』, 이해정 역, 서해문집, 2003, 346쪽.

60) 김영숙,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 『궁정인』의 의미」, 『이탈리아어문학』 제23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8, 6-7쪽.

라'다. 또한, “무기교의 기교,” “무관심한 노력,” “부주의한 주의”⁶¹⁾로도 표현되는 이 모순적 어휘는 궁정 문인이자 외교관인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Baldassare Castiglione)가 1528년에 출간한 『궁정론』에 처음 등장하였다. 모두 4권으로 구성된 『궁정론』은 1507년 3월의 나흘 저녁 동안 “우르비노 궁정에서 신하와 귀부인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상상하여 쓴 대화록”⁶²⁾으로 완벽한 궁정 신하의 모습에 대해 논한다. 특히, 예의·품격·우아함에 대한 논의는 ‘기술을 숨김으로써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 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스프레차투라 정신으로 귀결된다. 파올로 단젤로(Paolo D'Angelo)의 설명은 더 흥미롭고 정확하다. 그는 다이빙 행위의 아름다움을 질문하면서 스프레차투라의 본질에 접근한다. 다이빙 행위의 미(美)는 뛰어난 신체 능력, 훈련, 자기 통제, 기술, 투지, 강인함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애매하고(indefinite), 정의하기 어려우며,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야(elusive) 한다⁶³⁾는 것이다. 이는 ‘행위의 아름다움과 우아미를 위한 노력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궁정인의 스프레차투라의 핵심을 꿰뚫는다. 진정한 세련된 행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힘들이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인의 노력과 고생, 숙달된 기술을 감추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발현⁶⁴⁾되는 스프레차투라인 것이다.

“기예의 인위성을 감추어 자신이 행하고 말한 바가 노력 없이, 그리고 그것에 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도록”⁶⁵⁾하는 행위,

61) 임병철, 「권력관계 속에 봉인된 르네상스의 개인: 카스틸리오네의 『궁정론』에 재현된 이상적 궁정인」, 『서양사론』 제96호, 한국서양사학회, 2008, 163쪽.

62)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 『궁정론: 세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이인자론』, 신승미 역, 북스토리, 2009, 6쪽.

63) Paolo D'Angelo, *Sprezzatura: Concealing the Effort of Art from Aristotle to Duchamp*,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p.2.

64) 위의 글, p.3.

65) 임병철, 앞의 글, 161쪽.

“힘들이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는 담담한 태도 모든 일을 손쉽게 행할 수 있는 수월함 어떤 기술이나 자질이 몸에 배어 저절로 쉽게 나오는 상태”⁶⁶⁾, ‘실제보다 더 그럴듯해 보이는 무심함’, ‘의도한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느껴지는 우아함’ 등이 스프레차투라를 더욱 풍부히 설명해 준다. 그렇지만 이를 단순히 ‘우아함’, ‘매너’, ‘개의치 앎음 (carelessness)’ 등의 의미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교를 드러내지 않고, 행위와 말이 마치 생각하지 않아도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무관심’⁶⁷⁾이 바로 『궁정론』에서의 nonchalance(무관심)의 핵심에 가깝다. 또, assumed simplicity, pretended ignorance, detachment, effortlessnes 등의 어휘들도 이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준비 과정의 치열함과 노고는 결작을 대면하는 순간의 아름다움과 경외감을 훼손하므로 그 과정을 철저히 감추는 스프레차투라, 그 이면에는 위계, 권력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스프레차투라가 궁정인의 덕목과 자질에 관한 행동 양식이지만, 이는 결국 궁정에서의 편재된 권력을 의미하는 문화적 규범으로 작동하였다. ‘기예 교육’ 매뉴얼⁶⁸⁾을 통해 습득되는 궁정인의 스프레차투라는 문화적인 모형들을 통해 지속적이며 집중적으로 어떤 성향을 만들어 내는⁶⁹⁾ 하비투스의 습득 방식과 비슷하다. 궁정인에게 요구되는 복장과 전체적인 균형을 갖춘 외모는 신체자본의 하비투스와 공명한다. 또, “신분이 미천해도 완벽함의 정점에 도달할 수 있”⁷⁰⁾고, “귀한 집 출신이 아니어도 이상적인 궁정 신하가 된 예들”⁷¹⁾

66) 김영숙, 앞의 글, 14쪽.

67) Paolo D'Angelo, 앞의 책, p.5.

68) 설혜심, 『매너의 역사: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4, 118쪽.

69) 피에르 부르디외·니콜라스 간헐 외, 앞의 책, 94쪽.

은 후천적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비투스과 연결된다.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하는 것이 긍정인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그런 척하는 것이고, 이런 자연스러움은 오랜 연습이 있어야 나온다.”⁷²⁾라는 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스며든다⁷³⁾는 점에서 하비투스적이다. 본 논문이 새로이 제안한 ‘신체 움직임의 빠름/느림’과 ‘과장됨/무심함의 반응 양식’으로서의 하비투스에서 ‘느린 움직임과 무심함의 반응’은 상류층의 행동 양식으로 스프레차투라적이다. 후천적으로 습득 가능하고 문화적 기호로 드러나며 이 문화적 기호는 위계를 형성함으로써 권력관계를 반영한다는 점은 스프레차투라가 상류층의 하비투스라는 본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인 타임〉의 필립 와이즈를 포함한 뉴 그리니치 주민들은 이러한 스프레차투라, 즉 상류층의 하비투스를 구체화한다. 천문학적 시간(돈)을 소유한 거부(巨富)로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필립은 어떠한 위험, 위협에도 침착함으로 일관한다. “관습상 침착성 유지는 상위 계급의 몫”⁷⁴⁾이라는 말은 침착성 유지를 확보해 주는 상류층의 든든한 자본량을 의미한다. 월이 카지노에서 불리한 패를 갖고서도 쿨을 두 장 가진 필립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1100년을 획득해 갈 때, 월과 실비아가 와이즈 시간 금융에서 훔쳐 간 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시간 통제 시스템이 빨간색으로 도배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조차 그의 얼굴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평온하고 무심해 보이며 심지어 미소까지 짓는다. 그가 뛰는 모습은 영화에 등장하지 않는다. 뉴 그리니치

70) 설혜심, 앞의 책, 124쪽.

71)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 앞의 책, 52쪽.

72) 피터 데피로·메리 테스몬스 핀코위시, 앞의 책, 346-347쪽.

73) 김동일, 앞의 책, 5쪽.

74) 어빙 고프먼, 『상호작용 의례: 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 진수미 역, 아카넷, 2013, 38쪽.

주민들 또한 여유로운 걸음걸이와 침착함의 신체 하비투스를 고수한다. 그들은 파티장에서 월, 경찰(time keeper), 사설 경호원들이 권총을 들고 뛰어다니는 긴박함 속에서도 가만히 서서 표정에 일말의 동요 없이 그들을 지켜보기만 하는데 이 진풍경은 상류층의 심리자본을 보여준다. 이들의 풍족한 경제자본은 어떤 충격이나 위험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완충재이며 이것이 심리자본으로 전환된 것이다.

〈리플리〉의 가난한 청년 톰 리플리와 선박 부호 아들 디키 그린리프 행세를 하는 톰의 상반된 신체 운영 방식은 역시 스프레차투라적 하비투스로 구별된다. 톰은 디키와 그의 애인 및 친구들(부자 계층)과 있을 때 입을 많이 벌리고 웃거나 찡그리는 표정을 과하게 드러낸다. “귀족 신사라면 얼굴을 찌푸리거나, 울거나 웃거나 행동은 올바르지 않”⁷⁵⁾으며 이 과장된 모습은 오히려 허식적으로 느껴져 반(反) 스프레차투라적인 것이 된다. 영화 종반, 선박 부호 허버트 그린리프는 톰을 의심하는 마지를 진정시키며 아들 디키 그린리프의 죽음을 덮으려 한다. 이 과정에서 디키의 비도덕적인 과거의 행실이 밝혀지는데 이미 이를 여러 번 경험한 허버트 그린리프지만, 디키의 비행(非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의 죽음 앞에서조차 허버트 그린리프는 냉정하고 차분한 표정을 유지한다. 분노는 내면에 숨겨둔 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은 일상의 품격을 보여준다. 대규모 조선 사업을 하는 그의 위치는 당연히 과중한 업무량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또한 영화에서 한 번도 뛰지 않으며 톰, 마지와 대화할 때 매우 여유로운 신체 운영과 무심한 듯 평온한 표정을 보여준다.

〈기생충〉의 박사장과 연교 또한 스프레차투라적인 하비투스를 보여준다. 그들은 뛰지 않으며 몸놀림은 항상 여유롭고 우아하다. 기택의 계략에

75)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 앞의 책, 223-224쪽.

넘어간 연교가 문광을 내쫓은 후 부엌에서 익숙하지도 않은 요리를 할 때도 그녀 얼굴은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화롭고 여유롭다. 그녀의 풍족한 경제자본은 언제든지 새 가정부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실제 전화로 새 가정부를 구하고 충숙이 이 자리를 꿰찬다)이다. 그에 비해, 기택과 기택의 가족, 문광과 그의 남편,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들의 몸짓은 빠르고 천박하고 절박하다. 특히 기택이 '문광이 걸리지도 않은 '활동성 결핵' 판정을 받았다'고 연교에게 거짓말하기 위해 이를 가족과 연습하는 장면은 빈자와 부자, 이 두 계급 행위의 격차를 잘 드러낸다. '과장된 표정과 몸짓, 격앙되고 높은 목소리, 긴 내용'으로 말하는 기택에게 기우는 목소리를 낮추고 함축적으로 말하라고 조언하는데 이는 스프레차투라가 몸에 밴 연교에게 좀 더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이런 모든 신체 행위, 주어진 상황에서 드러나는 몸의 움직임과 표정 및 몸짓을 통한 반응 양식은 순식간에 발생한 상황에 반응하는 일상의 행위로 '거의 의식적인 노력, 미처 계산하고 의도할 틈 없이 즉각적으로 발현되는 행위의 집합체'라는 점에서 하비투스적이다.

5. 신체 움직임의 하비투스와 정동

본 논문은 지금까지 현대 사회의 경제체제가 초래한 심화된 경제 격차가 문화적인 기호에 의해 더 강화되고 있음을 하비투스의 관점에서 논하였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덕목 스프레차투라를 부자 계층의 하비투스와 연결하여 그 논의를 확장하였다. 이는 '집단적'이며 '무의식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하비투스와 스프레차투라를 집단의 감정구조인 '정동'과 연결

하여 해석할 가능성을 열어 준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하비투스·스프레차투라’와 ‘정동’의 속성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들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심화된 현대 사회의 경제 격차를 집단적 감정구조의 층위에서 발견되는 문화적 기호가 드러내고, 동시에 이것이 그 격차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코드화, 격자화, 위치화에 열중해 왔던 문화 연구⁷⁶⁾가 신체, 감각, 감정 등으로 그 관심을 돌린 정동적 전환(affective turn)의 중심에는 ‘정동’이 있다. ‘情動’이라는 한자어가 보여주듯 이는 고정 또는 확정되어 있지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이과정에 있는 그 무엇이다. 워낙 방대하여 아직도 합의된 정의에 이르지 못한 정동은 ‘인간의 몸, 미처 언어화되지 않은 영역, 의식 아래, 내장의(visceral) 힘, 전(前) 의식적, 인지적으로 계산된 것이 아닌, 기표화되지 않고 상투성과 관습의 영역 주위를 순환하는, 개인 차원이 아닌(apersonal) 집단에 의해 공유되는’⁷⁷⁾ 등의 의미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정동은 외부 자극에 대해 신체가 의식적 행위를 하기까지의 간격, 그 사이 0.5초의 시간으로, 우리가 자유의지의 결과라 믿고 있는 행위나 표현에 선행하며 의식 바깥에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⁷⁸⁾이다. 따라서 “행위하는 능력과 행위를 받는 능력의 한가운데서 발생”⁷⁹⁾하는 정동은 ‘정서(emotion)’와 구분된다. 정서는 정동이 정박된 것으로 “사랑이나 슬픔 등 자격이 주어진”⁸⁰⁾ 것, 즉 정동의 결과이다. 또, 감정(feeling)은 이전에 경

76) Brian Massumi,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p.17.

77) 김선형, 앞의 글, 135-140쪽.

78) Brian Massumi, 앞의 책, p.29.

79)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정동 이론』, 최성희 외 역, 갈무리, 2015, 14쪽.

80) 문재철, <디지털특수효과로 표현된 새로운 움직임의 미학>, 2020년 선정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과제번호 2020S1A5A2A01046211.

험한 바 있고 이름 지어져 있으며 개인적 차원의 것⁸¹⁾이다. 그러하므로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정동은 ‘집단에 의해 공유’되며, “아직 아닌 것들’, ‘미명(微明)’⁸²⁾의 망설임이지만 앞으로 도래할 잠재성을 긍정하는 강렬도의 ‘비의식적 경험’이다.

‘유사한 환경에서 생성되고 그 환경 안에서 습득되고 이전 가능하며 전달된다’는 점은 하비투스의 집단적 속성을 뒷받침해 준다. 스프레차투라 또한 사회관계 안에서 생성되고 발현되고 인식된다는 점이 집단적⁸³⁾임을 말해 준다. 부르디외는 하비투스가 ‘개인들의 관계와 연결의 총합’⁸⁴⁾이며 “특정한 구조, 특정한 상황과의 관계를 통해 작동”⁸⁵⁾한다고 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자본의 총량과 그 구조”⁸⁶⁾와 관련된다는 점은 집단을 구별하는 하비투스의 계급적 속성을 말해 준다.

〈인 타임〉의 구획화된 지역, 자본(시간)량의 부족으로 이동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각 지역은 바로 경제자본량에 의해 구별되어 있는 특정 구조다. 이 구조 속에서 생산되는 특정한 상황들로 형성되는 관계성은 하비투스의 형태로 각 거주지역 구성원의 몸에 내재화된 후 외재화되면서 계급의 표식으로 작동한다. 〈리플리〉의 톱이 소속된 공간은 그의 초라한 지하실 방과 호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 그가 맺는 사회적 관계 또한 유사한 경제적 계급에 소속된 사람들로 그들의 행위는

81) Eric Shouse, “Feeling, Emotion, Affect”, *M/C Journal* 8(6), 2005.

82) 이종찬, 〈정동, 마음의 움직임: 『정동 이론』(갈무리, 2015), 『정동의 힘』(갈무리, 2016)〉(서평), 『문화과학』 제86호, 문학과학사, 2016, 300쪽.

83) 4장의 225쪽, 226쪽의 내용을 참조하라.

84)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강, 앞의 책, 60쪽.

85) 위의 책, 467쪽.

86) 위의 책, 490쪽.

빈자의 하비투스를 나타낸다. 대조적으로 거부의 아들 디키는 초부유층이 거주하는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 부유층과 관계 맺는다. 그들은 부자 계급의 행동 방식을 공유한다. <기생충>은 경제계급 격차에 의해 공간을 지상, 반지하, 지하의 세 계층으로 구분하고 각 계급의 상이한 사회관계를 보여준다. 박사장 아이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 온 초부유층 학부형들과 아이들은 상류층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 준다. 그들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선물, 정원의 음악 연주는 상류층이 공유하는 문화를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기택 가족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은 냄새나고 지저분한 공간이다. 프레카리아트로 그들이 맺는 관계성 또한 유사한 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홍수로 침수된 그들의 반지하 주택을 피해 머무는 대피소(체육관)에는 그들처럼 홍수 피해를 입은 유사한 경제 계층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은 시종 고성을 지르고 이 공간은 너저분한 옷가지들로 가득하다. 지하에 숨어 사는 근세는 씻지 못하고 그의 끼니는 문광이 박사장의 부엌에서 훔쳐 오는 음식이며 그는 박사장 아들 다송이 괴물로 착각할 정도의 모습을 띠고 있다. 특정 공간 속에서 특정적으로 맺는 관계들은 경제 계급에 따른 집단성을 만들고 이는 계급 권력으로 작동한다.

스프레차투라는 상류층의 행위 도식이므로 그 자체가 집단적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생활환경에서 습득된 신체 행위로 세련된 범절과 고상한 품행을 늘 보고 자라면서 오랜 연습이 필요한 스프레차투라는 집단 속에서 습득되고 발현되면서 집단을 드러내는 계급적인 것이 된다. 이는 “실천적인 흥내 내기와 반응 반복의 결과”⁸⁷⁾라는 하비투스의 체화된 신체, 제2의 천성이라는 개념과 공명한다.

87) 위의 책, 527쪽.

〈인 타임〉의 초반, 체제를 회의하는 부자 계층 헨리는 미넛맨의 도발에도 평정을 유지한다. 그의 시간을 잠든 월에게 모두 주고 그의 생체 시계가 ‘0’을 향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다. 〈기생충〉의 박사장과 그의 아내는 기정이 박사장 차에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팬티를 발견하고서도 침착하게 대응한다. 심지어 연교는 일상에서 접하지 못하는 무언가 독특한 일이 발생한 것처럼 약간은 흥미로운 듯이 이 상황을 바라본다. 박사장 또한 운전기사를 불러 소리를 지르거나 분노하면서 따지기 보다 ‘합리적 의심’으로 추론하고 운전기사를 조용히 해고하는 방식으로 일을 마무리한다. 〈리플리〉에서 죽은 디키를 가장(假將)하는 톰, 디키의 애인 마지, 톰이 끝내 그의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살해하는 피터, 섬유 재벌 가문의 딸 메리디스, 이들 모두는 상류층의 스프레차투라적 행위 도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꾸지 않으며, 품격과 우아함을 장착한 몸짓과 동요하지 않는 침착하고 여유로운 표정으로 일관한다.

하비투스는 “언어나 의식을 거치지 않”⁸⁸⁾고 “몸에 새겨진 상태로 존재”⁸⁹⁾하며 “일생에 걸쳐 무의식적인 방식”⁹⁰⁾으로 작동한다. 이는 매우 미세한 차이들로 “몸의 욕구와 충동, 기억과 요령”⁹¹⁾이며, 거의 반사적이고 특별한 의도나 계획 없이 즉각적으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고 행동⁹²⁾하는 것이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환경 속에서 습득되어 몸에 내재하는 버릇 같은 것으로 의도하거나 계산하지 않은 채 자발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실천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상술한 정동의 의미와 중첩된다. 스프레차투라 또한 “계산된 행동보다는 감춰져 있다가 자연스

88) 피에르 부르디외, 앞의 책, 52쪽.

89) 위의 책, 291쪽.

90) 위의 책, 429쪽.

91) 이상길, 앞의 책, 66쪽.

92)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깥, 앞의 책, 508쪽.

럽게 드러나는 우아함⁹³⁾으로 이 또한 계산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정동적 행위인 것이다.

〈인 타임〉의 월이 헨리에게 받은 100여 년의 시간으로 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고가의 승용차와 옷으로 자신을 그리니치 주민처럼 보이려 하지만, 그의 미세한 행동 양식, 즉 빠른 행동과 뛰는 행위는 그가 외지인임을 폭로한다. 시간 거래 시스템을 관리하는 타임 키퍼들은 월의 거주지역에서 100여 년의 시간이 사라졌음을 알게 된다. 이는 곧 월이 그의 거주지역을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타임 키퍼들은 그를 추적하고자 한다. 이때, “잡기 힘들겠어요.”라는 한 타임 키퍼의 말에 또 다른 타임 키퍼는 “아니, 표가 나. 버릇은 고치기 힘들지.”라며 그리니치에서 월을 금방 체포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몸은 오랜 시간에 걸쳐 내재화된 행위 방식을 기억한다. 어떠한 계산, 의도적 행위가 불가능한 즉각적 반응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육체에 뿌리박은 이 무의식적 실천들은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낸다. 〈기생충〉의 기택 가족은 이를 더 명확히 보여준다. 온 가족이 편법을 써서 고용된 후, 박사장 가족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기택과 충숙, 기우, 기정은 마치 그들이 박사장 저택의 소유주인 양 파티를 벌인다.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고급술과 음식들, 고급스러운 공간과 그 안의 오브제들을 체험, 향유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 속에 그들이 사용하는 비속어와 저급한 제스처, 개 사료를 술안주로 착각하고 먹는 기정의 모습은 이내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문화적 습성과 위치를 드러낸다. 몸의 영역에서 무의식적으로 발현되는 정동적인 하비투스는 의도하고 계산하는 인지적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님을 이 장면은 확인해 준다. 〈리플리〉의 톰은 저급 하비투스와 고급 하비투스의 두 문화적 세계를 횡단한다. 그는 디키와 마지막의 고급 하비투

93) 설혜심, 앞의 책, 126쪽.

스를 신체에 각인하고자 하지만, 디키와 마지가 그를 신뢰하지 않고 차별하며 추궁하는 장면에서는 당황하고 과장하는 빈자 '툼'의 하비투스를 어김없이 보여준다.

벤 하이모어(Ben Highmore)는 레이몬드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기반으로 '경험, 지식 발생의 근원지로서의 감각하는 몸'을 정동적인 힘과 연결⁹⁴⁾한다. 문화가 단순한 가치체계가 아닌 “일군의 가치가 당신의 피부와 뺨속으로 파고드는 방식”⁹⁵⁾이라는 점도 몸에 각인된 하비투스와 공명한다. 하이모어는 감정구조가 주관적 감정을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것이며 이러한 주관적 감정이 사람들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성⁹⁶⁾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부르디외의 하비투스 개념과 연장선에 있다. 집단이 느끼는 그 무엇은 아직 그 형태(form)를 갖추지 못하여서 그들조차 어떻게 느끼는지도 모르는 것⁹⁷⁾이라는 표현은 결국 정동적인 것으로 귀결된다. 이런 느낌들이 형태를 이루게 되면 복수화되고 이전 가능하고 심지어 전염⁹⁸⁾됨에 따라서 이는 집단적인 것으로 작동한다. 일상의 반응이 항상 논리나 세계에 대한 관념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⁹⁹⁾는 점 또한 일상생활의 행위가 정동적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하이모어는 “정동은 들통 내 버린다.”¹⁰⁰⁾며 미세하게 드러나는

94) Ben Highmore, “Formations of Feelings, Constellations of Things”, *Cultural Studies Review* Vol.22, No.1, 2016, pp.144-145.

95)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앞의 책, 219쪽.

96) Jonathan Flatley, “Cultural feelings: mood, mediation and cultural politics”, *Textual Practice*, 2019, p.2.

97) 위의 글, p.4.

98) 도리스 메르틴, 앞의 책, 294쪽.

99) Ben Highmore, “The Everyday, Taste, Class” in *A Companion to Critical and Cultural Theory*, edited by Imre Szeman, Sarah Blacker, and Justin Sully, Oxford: Wiley-Blackwell, 2017, p.334.

100)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앞의 책, 206쪽.

세련된 안목 및 경멸 등을 정동과 연결하였다. 그 또한 하비투스를 정동적 차원에서 행사되는 문화적 권력¹⁰¹⁾이라고 보는 것이다.

하비투스는 본질적으로는 인지적이고 구조적 개념으로 출발하였지만, 그 결과인 행위나 반응은 정동화되어 있다. 스프레차투라 또한 ‘척하기’, ‘가장하기’, 어빙 고프먼의 어휘를 인용하자면 ‘연기’인 의식적 행위로 출발하지만, 그 습득 과정과 발현은 하비투스와 마찬가지로 정동적임을 앞에서 밝혔다. 환경과 관계의 구조 안에서 습득되는 이들은 상이한 환경을 반영하고 그것을 문화적 기호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집단적 차이를 나타내는 계급적인 것이 된다.

6. 결론

〈리플리〉의 원작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가 1960년 제작된 이후 2024년까지 두 번에 걸쳐 리메이크된 사실은 부자와 빈자, 이 두 계급의 문제가 종결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다수의 현대 영화가 경제 계급과 문화 계급을 논하며 계급 권력을 드러내는 문화적 기호를 적극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 사회의 계급 문제를 경제체제로 시작하여 문화적 기호, 몸의 영역을 경유하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동의 개입 없이 자본만으로 자본의 무한한 증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금융자본주의는 극심한 빈부격차를 생산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는 ‘자유’, ‘자기 경영’ 등의 수사학을 동원하여 사회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착취하게 하는 효과적인 운영 기술을 작동

101) 위의 책, 217쪽.

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은 경제체제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기 어렵다. <인 타임>의 윌이 처음 맞닥뜨린 ‘체제의 진실에 대한 질문’, 그것이 올바른 체제 인식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부르디외의 자본과 하비투스에 대한 이론은 여전히 동시대 사회 분석에 핵심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상호전환은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며, 금융자본주의 체제하에 탄생한 새로운 계급, 초부유층 계급인 슈퍼 엘리트들은 이전에 목격하지 못한 거대한 양의 자본을 소유한다. <인 타임>의 필립 와이즈와 <기생충>의 박사장은 바로 이 슈퍼 엘리트층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이들이 소유한 막대한 경제자본은 문화자본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형태의 하비투스로 드러난다. 언어와 취향 영역에서의 미묘하고도 비밀스러운 격차의 기호는 소유한 경제 자본량이 전환된 문화 자본량에 따라 구분되면서 경제 계급과 동시에 문화 계급을 드러낸다. 본 논문이 새로이 제안한 ‘신체 움직임의 속도’와 ‘주어진 상황에 대응하는 과장되거나 무심한 몸의 반응 양식’의 하비투스는 현대 사회의 심화된 경제 격차를 가시화하는 기호로 작동한다. 특히 상류계층의 신체 운영은 르네상스 시대 궁정인의 덕목 스프레차투라와 공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금융자본주의 체제가 이전의 자본 체제와는 확연히 다르며 그 이질적 구조와 작동 방식에 의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부의 양극화를 낳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초래한 심화된 계층 격차가 경제적 기호는 물론 문화적 기호로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미세한 수준에서 은밀하게 작동하여 감지하기 어려운 문화적 기호, 하비투스가 있다. 흥미롭게도 본 연구는 하비투스의 집단적이고 무의식적 성향이 집단의 감정구조인 정동과 접점을 형성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하비투스와 정동 개념을 동일 선상에 위치시켜 계급과 관련된 신체 움직임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자원 삼아 '집단적으로 습득되고 집단을 드러내는 상징', '집단 무의식, 집단의 감정구조', '위계의 상징이자 권력의 힘'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고 이를 통해 논문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미시적 신체 행위를 통해 거시적 사회를 경제와 문화 영역의 이론들로 통찰한 본 연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후속 연구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이는 하비투스과 정동의 교차점이 몸, 감각, 무의식이라는 점에서 몸과 사회를 연결하는 '사회화된 몸'에 대한 연구로의 확장을 의미한다. 부르디외의 '구조화하는 구조', '구조화된 구조'를 다시 한번 상기하며 사회와 몸의 상호 작용을 하비투스과 정동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본 논문은 다시 한번 현대 사회의 계급을 질문한다. 그리고 앞의 논의들을 통해 '강화된 계급사회'를 그 답변으로 제시한다. 신자유주의가 도입한 금융자본주의, 그리고 그것에 의한 금융화와 세계화는 극심한 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다. 경제자본이 문화자본으로 전환되면서 부유층의 문화자본량 또한 증가하고 이에 따라 문화계급에 의한 격차 또한 심화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중심에 하비투스라는 문화적 기호가 있다. 집단을 구별하여 위계를 드러내고 무의식적 층위에서 발견되어 정동적 힘, 집단의 감정구조로 작동하는 이것은 따라서 계급 상징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학관계 하에서 운영되는 현대 사회가 더 강화된 계급사회임을 환기시키며 연구를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영화 <리플리(The talented Ripley)>, 앤서니 멩겔라, 1999.

영화 <인타임(In Time)>, 앤드류 니콜, 2011.

영화 <기생충>, 봉준호, 2019.

2. 논문과 단행본

권창규, 「신자유주의 사회의 위험 상품화와 투자자 주체들」, 『한국문학연구학회 제96차 정기 학술대회』, 2018, 107-123쪽.

김동일, 『피에르 부르디외』, 커뮤니케이션북스(주), 2016.

김선형, 「금융자본주의시대 영화의 포스트 - 컨티뉴어티 연구」,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김영숙, 「발다사레 카스틸리오네, 『궁정인』의 의미」,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제23집, 한국이탈리아어문학회, 2008, 1-21쪽.

데이비드 하비,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 최병두 역, 한울, 2007.

도리스 메르틴, 『아비투스HABITUS: 인간의 품격을 결정하는 7가지 자본』, 배명자 역, 다산초당, 2020.

로버트 라이시,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안기순 역, 김영사, 2016.

마우리치오 라자라토, 『부채인간: 채무자를 만들어 내는 사회』, 허경·양진성 역, (주)메디치미디어, 2012.

멜리사 그레그·그레고리 시그워스, 『정동 이론』, 최성희 외 역, 갈무리, 2015.

문재철, <디지털특수효과로 표현된 새로운 움직임의 미학>, 2020년 선정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과제번호 2020S1A5A2A01046211.

박소진, 「자기관리와 가족경영 시대의 불안한 삶: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주체」, 『경제와 사회』, 제84호, 비판사회학회, 2009, 12-39쪽.

- 박찬중, 「금융의 사회학과 구조변동: '금융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논문, 2012.
- 발데사르 카스틸리오네, 『궁정론: 세기를 뛰어넘는 위대한 이인자론』, 신승미 역, 북스토리, 2009.
- 설혜심, 『매너의 역사: 품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4.
- 송한나, 「한국 사회의 계급위치와 계층의식 격차에 미치는 경제, 문화,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르디외의 자본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신형철, 『정확한 사랑의 실험』, 마음산책, 2014.
- 어빙 고프먼, 『상호작용 의례: 대면 행동에 관한 에세이』, 진수미 역, 아카넷, 2013.
- 에릭 올린 라이트, 『계급 이해하기』, 문혜림·곽태진 역, 산지니, 2017.
- 울리히 벡, 『위협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홍성태 역, 새물결, 2006.
- 이상길, 『상징권력과 문화: 부르디외의 이론과 비평』, 겐쳐북, 2020.
- 이종찬, <정동, 마음의 움직임: 『정동 이론』(갈무리, 2015), 『정동의 힘』(갈무리, 2016)>(서평), 『문화과학』 제86호, 문학과학사, 2016, 294-309쪽.
- 임병철, 「권력관계 속에 봉인된 르네상스의 개인: 카스틸리오네의 『궁정론』에 재현된 이상적 궁정인」, 『서양사론』, 제96호, 한국서양사학회, 2008, 153-179쪽.
- 코스타스 라파비차스, 『생산 없는 이윤』, 송중운 역,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20.
- 피에르 부르디외·로익 바깡, 『성찰적 사회학으로의 초대: 부르디외 사유의 지평』, 이상길 역, 그린비, 2015.
- 피에르 부르디외·니콜라스 간헐 외, 『문화, 일상, 대중: 문화에 관한 8개의 탐구』, 박명진 외 역, 한나래출판사, 1996.
- 피에르 부르디외, 『언어와 상징권력』, 김현경 역, 나남, 2020.
- 피터 데피로·메리 데스몬스 핀코위시, 『스프레차투라: 천재의 방식』, 이혜정 역, 서해문집, 2003.
- 한병철,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김태환 역, 문학과 지성사, 2015.
- 허만섭, 「문화자본론 관점에서 본 영화 <기생충>: 현대적 아비투스 계급의 발견」, 『영상문화콘텐츠연구』, 제19호, 동국대학교 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2020, 139-164쪽.

- Ben Highmore, "Formations of Feelings, Constellations of Things", *Cultural Studies Review*, Vol. 22, No. 1, 2016, pp.144-167.
- _____, "The Everyday, Taste, Class" in *A Companion to Critical and Cultural Theory(Eds)*, Imre Szeman, Sarah Blacker, and Justin Sully, Oxford: Wiley-Blackwell, 2017.
- Brian Massumi, *Parables for the Virtual: Movement, Affect, Sens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2002.
- Eric Shouse, "Feeling, Emotion, Affect", *M/C Journal* 8(6), 2005.
- Guy Standing, *Precariat: The New Dangerous Class*, Bloomsbury, 2011.
- _____, *The Politics of Time: Gaining Control in the Age of Uncertainty*, Penguin Books, 2024.
- Jonathan Flatley, "Cultural feelings: mood, mediation and cultural politics", *Textual Practice*, 2019, pp.1-5.
- Paolo D'Angelo, *Sprezzatura: Concealing the Effort of Art from Aristotle to Duchamp*,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 Pierre, Bourdieu, *The Logic of Practice*, Cambridge: Polity, 1990.
- Sam Friedman & Daniel Laurison, *The Class Ceiling: Why it pays to be privileged*, Bristol University Press, 2020.

Abstract

A Study on Distinct Movement of Film Characters in Different Economic Classes – from the Perspective of Habitus and Affect*

Kim, Sun-Hyung(Chung-Ang University)

In *In Time*, time serves as currency, replacing traditional money and structuring all facets of economic activity through a temporal mechanism. The film juxtaposes the economic elite, endowed with or granted infinite time and living as the eternally privileged, against the impoverished, who must survive through daily labor. Interestingly, the film repeatedly questions the divide between these two classes by depicting their contrasting locomotor patterns and modes of physical responses. Characters in *The Talented Mr. Ripley* and *Parasite* likewise expose social disparity through the body. Focusing on this aspect, this paper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economic disparities produced by the system and bodily movements, interpreting these movements as signs that reveal the symptom of contemporary society: the intensification of class division.

The contrast exists not only between “running and not running,” but also between “exaggerated and indifferent bodily reactions in particular contexts.” These reactions serve as class markers, differentiated by economic standing. This study conceptualizes such bodily responses not as the result of conscious judgment or calculated actions, but as habitus — deeply ingrained through long-standing habits and enacted unconsciously and instantaneously. Furthermore, by associating the upper class’s refraining from running and indifferent demeanor with the Renaissance courtly ideal of sprezzatura, this research extends the framework of habitus. The conversion of economic capital into cultural capital, and the habitus that reveals this capital — acquired within specific environments and manifested at an unconscious level as collective

schemes — resonates with affect. Differentiated bodily practices expose ‘the structure of feeling’ characterizing the lower and upper class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lucidates how transmitted and embodied habitus operates as a mechanism of ‘distinction’ between social groups, thereby rendering visible the entrenched stratification of contemporary class society.

By encompassing the economic system of contemporary society, the habitus of bodily movement, sprezzatura, and affect, this research explores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culture through the micro-level bodily practices of different social groups. This, in turn, sheds light on the macro-level social structure. Moreover, the study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theoretical scope of habitus and has significance in aligning with recent scholarly developments emphasiz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body and society.

(Keywords: economic class, bodily movement, habitus, sprezzatura, affect)

논문투고일 : 2025년 4월 28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1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16일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23S1A5B5A17086432)